세계사 흐름을 바꾼 28개의 전쟁 지도로 읽기

한눈에 꿰뚫는 전쟁사도감

조지무쇼 지음

흔히 "역사에 만약(if)은 없다"고들 말한다.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전쟁사에서 만약 그러한 가정을 해본다면 어떠할까? 로마와 카르타고의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이겼더라면 하는 가정 말이다. 그는 예상을 뒤엎고 평지 대신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를 기습했다. 선두에는 전투용 코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그는 로마와의 전쟁을 전면전보다 제한전쟁으로 인식했다. 결국 70여년후, 카르타고는 로마와의 대결에서 패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로마제국은 지중해 제해권을 500년간 장악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한눈에 꿰뚫는 전쟁사도감'은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28가지 전쟁을 살펴본다. '지도로 읽는다'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소개되는 여러 전쟁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래픽 지도와 도판을 활용했다. 전쟁이 발발한 시대적 배경과 전술·전략 등 당시 전투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일본의 기획편집 집단인 '조지무쇼'(造事務所)에서 펴낸 책이다. 이들은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게'라는 3대 슬로건을 내걸고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1985년 창립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9월 11일, '대 테러전쟁'을 선언하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적극 개입했다. 당시 알카에다 조직원이 납치한 여객기 충돌로 연기에 휩싸인 세계 무역센터.

이 책은 ▲1장 해양국가와 대륙국가 ▲2장 기독교와 이슬람교 ▲3장 선발 제국주의와 후발 제국주의 ▲4장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5장 동서분쟁과 민족분쟁으로 나눠 인류역사를 바꾼 전쟁사를 세밀하게 고찰한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가우가멜라 전투'(기원전 331년)를 비롯해 서유럽을 침공한 이슬람 세력을 막은 '투르 푸아티에 전투'(732년), '30년 전쟁'(1618~1648년), '중동전쟁'(1948~1973년), '이라크 전쟁'(2003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기적 전쟁들을 소개한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70년까지 200여 년간 지속됐다. 본래 목적은 이슬람교도가 지배하는 성지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었다. 7차례에 걸친 원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동서 기독교 세력의 분열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중해에 면한 항만 상업도시들은 전쟁병력을 이송하며 발전을 거듭했고, 후일 르네상스의 기초가 됐다.

세계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한다. 과거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인간의 갈등은 정치가 해결하고, 정치의 갈등은 전쟁이 해결한다'고들 말한다. 영토확장과 교역항 확보, 제해권 패권다툼, 자원확보, 종교적 갈등 등 전쟁이유는 다양하다.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세기적 전쟁사를 읽으며 독자들이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현 국제정세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다. 일촉즉발,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한국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위력적인 전쟁무기 틈새에서 인류는 더 이상 전쟁을 통한 빼앗기가 아닌 상생과 공존, 평화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이다미디어·1만3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계 스포츠 마니아인 작가의 올림픽 관전기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히가시노 게이고는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은 일본 소설가 중 한 명이다. 2012년 출간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아직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머물고 있으면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등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가 이번에는 에세이로 돌아왔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소설과 달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에세이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작가의 모습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80여편의 소설을 썼고, 대부분이 일본에서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는 그지만 자신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는 5편 정도에 불과하다. 이번에 출간된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는 한국에 소개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첫 에세이다.

'꿈은 토리노를 달리고'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관전기다. 자타가 공인하는 동계 스포츠 마니아인 그는 문학잡지의 의뢰를 받고 토리노로 떠나 글을 썼다.

책은 저자의 고양이 '유매키치'가 사람이 돼 전개해 나간다. 고양이는 주인아저씨가 '사기에 가까운 소설을 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쿨하게 평한다.

글에서는 스키점프, 스노보드, 컬링, 바이애슬론 등 스포츠 종목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자랑하는 해설자로, 귀여운 스포츠 팬으로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우일씨의 유쾌한 그림까지 어우러져 읽는 재미를 더한다.

출판사 측의 권유처럼 2000년 시드니 하계 올림픽 관전기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시드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경기 관람기인 오쿠타 히데오의 '야구를 부탁해'를 함께 읽어도 흥미로울듯하다.

우리나라 작가의 2017 평창 동계올림픽 관전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

〈비채·1만3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내 마음이 지옥일 때=재난 상황뿐 아니라 실상 모든 개인의 일상에서도 '마음 속 지옥'을 경험하고 있음을 목격한 심리기획자 이명수가 책의 영감자인 정혜신 박사와 소통하며 마음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이드를 담아냈다. 답답한 고통의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시(詩). 한 편의 시가 한 끼의 밥보다 더 든든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저자는 애독하는 수천 편의 시 중 82편을 고르고, 각 시마다 공감하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곁들였다. 〈해냄·1만4800원〉

▲천재는 왼쪽 미치광이는 오른쪽=주위를 둘러보면 우울증, 강박증, 의존성 인격 장애, 히스테리 등 다양한 종류의 '정신병'을 앓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경쟁 속에 빠진 바쁜 현대사회는 어느새 이러한 '정신적 질환'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책은 먼저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진찰한다.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 스스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구체적인 증상, 심리학적인 분석과 치료법 등을 알려준다. 〈정민미디어·1만5000원〉

▲들뢰즈와 가타리를 통해 유아교육 읽기=유아교육의 다양한 대안적 이야기. 스웨덴의 유아학교에서 얻은 생생한 사례들이 실려 있다. 다소 낯선 학자들과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낯선 어휘들이 등장하지만 유아교육이 교육 영역에 속하고, 교육 현장은 예측 불가능하며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이론적, 실천적 사고의 지평은 점점 더 확장된다. 책은 교육의 본질적인 질문을 탐구하고 있다. 〈살림터·1만7000원〉

▲건너간다=소설가 이인휘가 12년 만에 선보이는 장편소설. 시대의 아픔을 노래한 가수 정태춘의 삶과 노래에 영감을 받아 쓰인 이번 소설의 제목은 정태춘이 98년 발표한 노래 '건너간다'에서 빌려왔다. 소설 속에는 정태춘의 노래 '92년 장마, 종로에서'를 비롯, 총 10곡의 가사가 인용돼 있다. 소설은 정의·평화·자유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어온 사람들의 면모를 노래의 힘과 함께 펼쳐놓는다. 〈창비·1만2000원〉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들=책에서 이야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사상가는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나 구조와 관행과 관련해 어떤 업적을 이뤘거나 탐구할 가치가 있는 인물을 지칭한다. 어떤 인물은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사상을 직접 역설하기도 했지만, 어떤 인물은 단지 행동만 했을 뿐이다. 책은 그런 행동가들의 행동을 촉발시킨 생각이 무엇이며 그 행동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을 커뮤니케이션 사상가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했다. 〈인물과사상사·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꼬리 꼬리 꼬꼬리=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림책. '꼬리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생쥐의 작은 상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림책 속에는 진짜 생쥐 꼬리처럼 긴 고무줄이 페이지마다 연결돼 있어, 상상을 실제로 조작해 보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킬러게임=명문 기숙학교 학생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노는지 그려낸 학원물이다.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정해진 킬러가 멤버를 죽이는 시늉을 하는 기막히게 코믹한 방법과 또 범인을 추적해내는 긴장감이 색다르며, 위트와 반전이 고비고비 심장을 쥐락펴락하는 추리소설의 묘미도 갖춘 책이다. 〈씨드북·1만2000원〉

▲누가 우모강을 죽였을까=길에 버려진 강아지 모강이를 옥상에서 몰래 키우던 4명의 친구들. 그런데 어느날 모강이가 죽는다. 누가 모강이를 죽인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는 아이들의 심경과 무책임함이 적나라하게 그려진다.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우는데 막중한 책임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크레용하우스·9500원〉

▲진짜 거짓말=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11편의 단편에 담겼다. 가족의 문제, 가난의 문제, 외모 고민, 성적 고민, 가족 간의 갈등 등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간절한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이다. 〈고래가숨쉬는도서관·1만2000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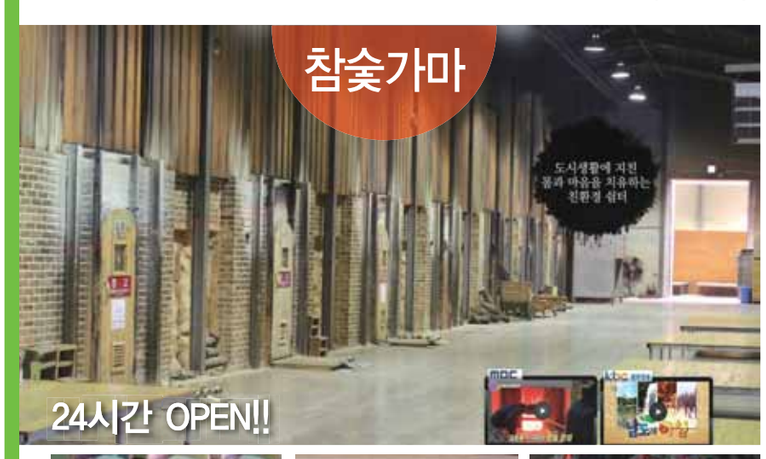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